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청년봉사선교회 여름수련회

조용목 목사 특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 성공적 삶의 관건” 강조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청년봉사선교회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 12:2)는 주제로 8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열렸다.

수련회 첫째 날에 청년들은 개회예배, 청년 주제발표, 특강 시간에 경제·사회·과학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성령충만기도회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둘째 날 전체특강 시간에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금번 수련회 주제인 롬 12:2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표준을 제시해 주

었다.

조용목 목사는 “하나님은 우주만물 가운데 자연법칙을 두었듯이, 성경 가운데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이를 이루시는가 그리고 사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계에 매우 다양하고 많은 법칙들, 변함없는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성경 안에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 불변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극히 값진 지식입니다.”라고 전했다.

조용목 목사는 이어 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②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③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이라는 세 가지 용어로 형용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부족함이 없는가’라고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압니다. 분별하는 방법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조 목사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탐심을 디스리고, 결집돌인 자기 중심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곤란과 희생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며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둘째 날에는 또한 영상과 전시물을 통해 이단 사이비와 동성애 등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와 현상을 성경말씀으로 조명해보므로 더욱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

셋째 날에는 ‘GNTC 대전차’ 프로그램에서 체육대회와 부스(booth)에 참여하여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고 주안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은혜를 나눴다.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은혜로운 말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진 청년들은 폐회 예배에서 수련회 기간 동안 이처럼 큰 은혜를 배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배우고 들은 말씀을 적극 준행하며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다.



교단 제73차 총회 제4회 임원회

차별금지법 법안 상정 철저히 막아내야

감염병 경계, 한미동맹 강화 북한도발 허사가 되도록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4회 임원회가 지난 8월 27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침례교(담임 오세준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

계 백영자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127:1-5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집은 헛되므로 예수의 피로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상 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성령과 성령의 은사로 인생의 집을 세워야하며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축도보고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보고에서 아세아 태평양지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회의(APAGF)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려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여 교단의 비전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미래비전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교단 교육국(국장 조선남 목사) 주관 2024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청소년연합수련회가 대림밸리교회 평창수양관에서 2박 3일간 개최되는 가운데 열려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김기진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으로는 교회가인 청원, 교역자가인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역자후지 청원, 교역자은퇴 원로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천 보고 등을 처리했다.

이어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전국 장맛비로 호우경보로 잠정 연기되어 오는 9월 12일(목) 양평동 총회회관에서 열리게 되었고 아시아 태평양 하나님의 성회 신학협의회 이사회 및 학술심포지엄이 9월 8일-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려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게 됨과 탄구선교회 모임이 9월 2일(화) 충북 괴산 괴산순복음교회(담임 기호선 목사)와 인근 탄구회관에서 열리게 됨을 보고했다. 특히 9월 26일(목)부터 2박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여교여자국际 추계세미나 및 애유회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임원들은 최근 코로나 감염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는 상황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총회원들에게 당부하기로 했으며 적령기 결혼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저 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또한 말씀왜곡으로 영혼을 수령으로 빠뜨리는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핵무장 암울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예수님의 삼상 보호 가운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너그러우며 자제력이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인의 자신과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편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부족과 연약을 용납합니다. 성격이 과격하고 강한 사람은 사회에서 고독합니다. 사람이 강하게 행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주 장시간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부신과 갑상선이 정상 이상의 다행의 호르몬을 번번하게 분비하게 되어 육체의 건강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공의와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는 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이 강하게 되지 않게 하고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온유한 자가 미안하게 혹은 무력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자제력이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평안을 즐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물이 합쳐지므로 모두 의사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시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도움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 믿을 때 이것이 지적 온유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적 온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 받았으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의지적 온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아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너그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흥해 앞에 당도하였을 때 애굽 왕과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기 위하여 추격하였습니다. 전퇴양난의 곤경

(은혜와진리교회)

생명의 말씀



김덕영 목사

- 서울중앙지방회장
- 진리교회 담임

히스기야의 신앙

사 38:16-19

자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느니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한한 하나님으로 믿으면 기도도 응답도 제한받고 맙니다. 그러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응답도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나타난 그의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사는 것과 생명이 주께 있다는 신앙입니다.

16절을 보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으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도, 생명도 주께 있으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치료와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빚은 무생명체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서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었습니다. 제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죽게 되고 아무리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눅 12:20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생명도, 사는 것도 주께 있다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2.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신앙입니다.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리”고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만을 바라본다면 절망과 원망이 뒤엉기게 됩니다만, 그러나 고통 뒤에 도사리고 있는 평안을 바라본다면 감사와 인내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직면한 큰 고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숙적인 악수르가 쳐들어오는 것과 둘째는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큰

오늘도 우리의 큰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단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3. 산 자만이 주께 감사한다는 신앙입니다.

18-19절을 보면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친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게 되어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찬양도 감사도 고백도 증거도 할 수가 없지만 산 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 있으나 영혼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은 살아 있으나 육체가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이 살아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죽은 신앙인지를 측정하려면 나의 삶 속에 감사와 친양과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눈을 들여다보고 헛바닥을 들여다보고 맥을 짚어 보고 그리고 청진기로 기슴을 짚어 봅니다. 이것은 진찰의 초보 단계이자 진찰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증거라든지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은 자나 구덩이에 들어간 자나 음부에 들어간 자는 주님을 친양하거나 사례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살았다는 증거는 사례와 감사와 증거에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본문 20절에서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라고 하며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죽은 자에게 노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호흡과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산 신자와 죽은 신자는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 구분하게 됩니다. 제때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터로 나가고 자기 구실을 해내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지난 사람이며, 그 생명력으로 일하고 쉬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3:1을 보면, 사데 교회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율은 고후 6:9에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실상은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살고 사랑이 살고 기도가 되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받은바 은혜가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산자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동정

한동대, 글로컬대학30 선정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지난 8월 28일(수)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한동대는 향후 5년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과 대학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동대는 ‘교육을 세계로, 미래로, 세상에 공헌하는 글로벌 HI 플랫폼’ 비전 아래, 교육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제6회 안디옥 선교포럼 개최



제6회 안디옥 선교포럼이 지난 8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선교사, 누구를 보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남 신안군 영해리트리벌리지에서 개최됐다. (사)AWMJ선교회(대표 신화석 목사)가 주최하고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KWMF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어떤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기독문화선교회 임·회원 모집



새기독문화선교회(이사장 김숙희 목사·상임회장 강형규 목사·대표 서정현·사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 임원과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독문화선교회는 ‘신비롭 박사’로 알려진 고 황수관 박사가 2004년 1월 설립한 문화선교단체다. 2014년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고 특허청에 ‘신비롭’ 상표 등록도 했다.

배우 박보영, 아동청소년 후원



배우 박보영씨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체험교육 및 속옷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후원했다. 지난 5월, 배우 박보영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파운데이션에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보영씨의 따뜻한 나눔으로 5월부터 9월까지 170명의 아동청소년이 문화체험교육에 참여했다.

교신양과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서구 사회와 좌파 세력의 전략지침이 되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성소수자를 과잉으로 보호할 때 가정은 파괴된다

얼마 전에 끝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때아닌 성별 문제를 불거졌다. 여자 복싱 분야에 출전한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와 대만의 린위팅 선수가 남성 호르몬인 XY염색체 검출 문제가 있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문제없다며 그들의 출전을 허락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제복싱협회(IBA)는 이들에게 XY염색체가 검출되었기에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많은 세계인들이 보고 놀랐다. ‘저것이 어떻게 같은 여자끼리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켈리프 자신은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살았다면 향연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불공정한 게임으로 보았다. 그야말로 맞불이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짤짜매는 모습이었다. 켈리프와 16강전에서 경기를 치른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나는 1라운드 46초 만에 기권하면서, ‘살면서 그런 편치를 맞아 본 적이

없다’는 유명한(?)말을 남겼다.

물론 여성이면서도 ‘성 발달’ 이상 질환이 앓고 있는 여성은 출전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10만명 당 2~5명의 아주 극소수에게서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자기 의견을 밝힌 사람들은 ‘괴롭힘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그 피소자 명단에는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르ول링과 일본 마스터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포함되어 있다. 또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샘 폴더도 프로그램 진행자에서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한다. 급기야 미국의 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여, 또 다시 이 문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LGBTQ(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소수자 전반-이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성, 혹은 성소수 분류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에 대한 행정부의 과잉 보호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성소수자’의 문제, 동성애자의 문제,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지지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차별’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동성애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대법원 전문 체널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샘 폴더도 프로그램 진행자에서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한다. 급기야 미국의 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여, 또 다시 이 문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여 년 간 서구에서는 기독교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 성규범, 성윤리를 무너뜨리려는 역할을 활발히 해왔다. 이것이 ‘성혁명’(sexual revolution)이다. 첫 번째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인

간 중심의 혁명-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마구 죽였으며, 국가를 무질서 상태로 만들)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프랑스에서 1968년에 일어난 ‘68혁명’(부정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여, 전통적인 결혼, 가정을 해체)을 꼽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들은 성규범의 해체, 가정의 해체, 기독교의 해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당시에 활동했던 사상가나 지성인은 자신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이런 조류(潮流)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때의 인물로는 장 자크 루소, 어거스트 콩트, 샤를 푸리에, 프리드리히 니체, 지그문트 프로이드, 칼 용, 빌헬름 라이히, 알프레드 칸제이, 존 머니 등이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런 운동에 정신적 기원을 둘어놓은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칼 마르크스(K. Marx)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성스러운 가족(성부, 성자, 성령-삼위

일체)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랑하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일부 일처제는 기생충과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해체하려면 동성애, 일부 일처, 일처다처, 복수연애, 다중세스 등을 감행하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의도 가운데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공산혁명을 다시 주도면밀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네오-마시즘을 만들었다. 이는 마르크스의 사회과학적 분석(노동력에 의한 자본주의의 착취)과 여기에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인간정신적 분석(성충동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억압)을 융합시킨 것이다. 그래서 네오-마시즘은 인간의 성욕을 사상적,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네오-마시즘의 최고봉으로 꼽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라미시이다. 그는 정통 공산주의에서 표방하는 프롤레타리아 하부 구조의 계급투쟁을 통한 혁명이 아닌, 상부 구조를 제압하여 정치, 문화, 교육, 사법, 종교, 교육, 언론, 학술 부문의 지식층에 침투하여 진지(陣地)를 구축하고, 혜계모니를 장악한다는 전략을 통해 기독교를

유례 없는 폭염 속

동부전선의 경계근무 장병 격려

군선교위원회 동부전선 을지부대 위문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 국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8월 26일(월) 총회장 김영준 목사와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멘교회 담임), 위원장 박순용 목사, 국장 정석현 목사 등 위원단을 구성 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의 어려움 속에서도 동부전선의 가장 험준한 산악을 물샐틈없이 경계하고 교육훈련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찾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격려하고 돌아왔다.

을지부대에 도착한 위원단 일행은 부대장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바로 부대 소개영화를 관람한 뒤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회장 김영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혹서기 부대장과 사단 전체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이 되어서 모범적인

부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어 전임총회장 임웅재 목사, 군선교위원회 박순용 목사는 장병들의 군생 활과 군선교의 필요성을 비롯 허락되는 한 많은 교회들이 부대를 방문하여 기도와 격려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향로봉교회 수리를



제주한마음교회 이호해수욕장에서 침례식 거행

제주지방회



제주한마음교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 교단 부흥사회장, 교단 임원 역임)는 지난 8월 25일(주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온전한 신앙고백과 주님께 순종을 결단한 성도들에게 침례식을 거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제주한마음교회 김건수 목사는 주일 예배 후 침례자를 비롯 성도들과 함께 무더운 날씨였지만 경건한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

을 다해 침례예식을 거행했다. 침례예식을 통해 물속에 잠김으로 첫 아담에 속했던 지옥 갈 죄인의 신분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하여 물속에 장례 치르고, 물위로 올라온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영원한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가졌음을 듯인(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의 지상대명(마 28:19)인 침례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우 목사)는 지난 8월 26일(월) 오전 11시 성도순복음교회(임임 김진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순구 목사(시방이념치는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재무 박안나 목사(화평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한정숙 목사(여수사랑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오승우 목사(천안서복교회)의 요일 2:15-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의 행복 출처'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지방회원들은 1나라와 민족을 위해



2.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3.교회부흥을 위해 4.목회자 가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임회장 황수반 목사(순복음나눔교회)의 기도, 서기 김찬애 목사(추계교회)의 현금 기도, 전임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

원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지방회원들은 근처 청원꽃재장 식당으로 자리 를 옮겨 식사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성규 목사)는 지난 8월 22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예빛교회(임임 고에스더 목사)에서 제73차 인천지방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법근 목사(전주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 후 지방회장 김성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신동임 목사(산들교회)의 대표기도, 권영옥 목사(순복음생명나루교회)의 특송,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반 목사는 창 1:1-5 말씀을 본문으로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매일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양보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자. 부요하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면 우리 안에 부요를 허락 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소정희 목사(화평순복음교회)의 현금기도,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의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월례회를 마친 지방회원들은 회계 고에스더 목사의 섬김으로 둘째자리에서 맛있는 식사와 사랑의 교제를 마친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탁구를 통한 선교 확장...활력 넘치게!!

탁구선교회 제6회 탁구 정기모임



설교 임태현 목사
생명시내교회

예하성 스포츠선교회 산하 탁구선교회(회장 임기설 목사, 총무 기호선 목사)는 지난 9월 29일(월) 오전 11시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송평길 105-7 소재 괴산순복음교회(임임 기호선 목사)에서 제6회 탁구 정기모임을 갖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인 탁구를 통한 선교사업 확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운동하며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탁구선교 회 총무 기호선 목사(괴산순복음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용인지방회 임태현 목사(생명시내교회, 탁구선교회 수석코치)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빌 3:12-16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죄아가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세상의 허단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모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2부 기도회는 교단 전임서기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멘교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전임회장)의 인도로 '교단과 나라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8월 20일(화) 하늘소망교회(임임 조정훈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 고성록 목사(하비꿈교회)의 찬송 인도 후 지방회 총무 서성영 목사(복된 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남수 목사(밝은빛교회)의 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 재무 정세창 목사(은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마 6:33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과 신앙 양심을 통해서 옳은 것을 찾는 신실



한 목회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자의 인도로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와 치료를 위해 중보기도 후에 강신홍 목사(주사랑교회)의 현금기도와 전임지방회장 정석현 목사(평강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부회장 김진현 목사(비전교회)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하늘소망교회에서 준비한 다과와 중식을 마친 후, 인근 커피샵에 모여 믿음의 교제 후에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충남 대천에서 야유회 갖고 사랑의 교제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영덕 목사)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월)~27일(화) 1박 2일 동안 충청남도 대천에서 야유회를 갖고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첫째 날,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서천 성경전래기념관에 들어 200년 전 영국인을 통해 한국최초로 성경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 아렌젤러순직기념관에 들어서 선교사의 헌신과 사랑을 체험하였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오후 8시 30분, 월례회 겸 도착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임종동 목사(성화교회)는 시 126:1-6 말씀을 본문으로 '기쁨의 때,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1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들고 기도하라 2피와 땀을 흘리는 눈물의 기도 3믿음의 선한싸움을 싸우고 이기자는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2부 회의에서는 회무보고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아침 8시에 조직하고 대천해수욕장에서 회원들과 바닷가 산책을 즐겼다. 대천에서의 기쁨의 추억을 사진에 담고 한 마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오전 10시에 출발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서울중앙지방회 전임회장 김상기 목사는 행 20:19-24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1)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 2)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

3)성도를 키우기 위해 4)주님만 바라보고 달리자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보령총평수영장에 들어서면서 바다 공기를 흡입해 마시고 오천향에 있는 맛있는 키조개 요리로 점심식사를 하고 홍성스카이타워에 들어서 키조개 요리를 먹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매송휴게소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회원들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주신 날을 감사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와 민족복음화, WCC, 동성에 반대, 열방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고 사회자의 광고 후 임용재 목사(산정리순복음교회, 전임총회장)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 회원들은 괴산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후 청천면 송문로

덕평길 54-13 덕평민원봉사실 탁구장으로 이동하여 연습경기와 친선경기, 레슨을 하는 시간을 갖고 활력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을 마치면서 열심으로 경기하고 함께해준 회원들을 격려하고 선물을 나누며 2024년 9월 정기 모임은 은혜 가운데 마쳤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제특허)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에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5)탁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전북대연구논문)

6)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흥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탁시풀(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회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제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증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짤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 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및 야유회

|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 9월 28일(토) 2박 3일

| 장소 | 부산 순복음주찬미교회 외 2개 교회

부산 순복음주찬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
부산 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호
(051-867-1615)

| 참석대상 | 전국여교역자

| 문 의 | 재정부장 최정희 목사 (010-7592-5575)
행정부장 김찬애 목사 (010-3568-2384)

| 참가비 | 2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6-1626-0870-93(조영란)

국장 조영란 목사
단현밸리교회

모시는 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여교역자 회원 여러분!

폭염의 뜨거움처럼 세상이 반성경적세계관, 반기독교관으로 물들어 가는 암울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성경적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히려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산하에서 부르심의 소명 따라 목양지를 섬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외롭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넉넉히 이기며 오늘도 잊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단을 지키는 여교역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24여교역자 수련회 및 야유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여교역자국 수련회가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 되어 목양의 고통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증거 되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여 위로의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의 인내가 진리로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올림

2024년 추계수련회 및 야유회 일정표

	26일(목)	27일(금)	28일(토)
06:30			
07:30		Q.T 말씀의 떡을 떼며	Q.T 말씀의 떡을 떼며
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		부산투어 하나됨과 위로의 시간들~	폐회예배 사회:안신자 목사 기도:이복순 목사 설교:백영자 목사 현금기도:김종애 목사 장소:세울교회
10:00			
11:00			
12:00 ~			
13:30			
14:00			
15:00	등록		
16:00 ~	개회예배 사회:조병희 목사 기도:이인호 부총회장 설교:김영준 총회장 권면:한승남 목사 축사:탁정신 목사 현금기도:최정희 목사 장소:주찬미교회/윤혜영 목사		
18:00 ~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20:00 ~ 22:00	WORK SHOP 진행:조은혜 목사 (글로벌미션교회)	저녁집회 사회:김찬애 목사 기도:황연선 목사 설교:정부용 목사	
이후	숙소로~ 단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장소로 섬겨주신 부산지방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역에서 교회까지 셔틀 차량 운행

*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밸리교회전임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국장 조영란 목사
단현밸리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
지
부
장

예배부장	복지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재정부장	행정부장	행사부장	친교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진리와사랑교회 이복순 목사	금영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대전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후계교회 김찬애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숙 목사	순복음은혜와사랑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인자방회	서울강남자방회	서울남서자방회	경기자방회	경기중앙자방회	경기남서자방회	경기북자방회	경기남자방회
예수왕기교회 정에스더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숙 목사	주사랑 순복음교회 이주안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기애나눔교회 표현자 목사	예수사랑교회 예정희 목사	반석샘물교회 배길선 목사
대전자방회	충북자방회	충남자방회	청주자방회	경남자방회	영남동자방회	부산자방회	광주자방회
새로와지는교회 김희자 목사	은혜서원교회 장성미 목사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순복음 사랑의교회 최명애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순복음복음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온혜의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온선교회							
국장 조영란 목사 단현밸리교회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온진자방회
심연숙 전도사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 잊었지만 외양간 고치자

‘피고(건강보험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남성 동성에 커플)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다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대법원 판결(2024. 7. 18)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해 성립한다고 했다. 즉 결혼은 남녀, 양성 간에 의하여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과 민법을 무시하고 반헌법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한다’라는 헌법 103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뒷받침으로 불고하고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 후 11일 뒤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약 51%가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찬성 42%). 즉 반헌법적 판결만이 아니고 반국민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62%가 반대하고 있다. 찬성은 2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결혼관은 헌법과 일치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원이 이렇게 반헌법적이며 반국민적인 판결을 내릴 때, 그리고 이 판결이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판결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법원의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 결합 커플에게 확대 적용한 후 단 2년 만에 동성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대만도 2017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법 혼인조항이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한지 2년 뒤인 2019년 5월 24일 동성혼이合法화됐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국교회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연합하여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동성결혼 합법화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자연스럽게 통과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배수진을 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이다. 여기서 지면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착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 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함께 통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좌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딤후 6:12)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딤후 4:7)

의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는 나라

필자가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 명이 죽을 짐작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우리말도 아직 서툰 유학생이 죽을 짐작을 갖다는 것이 의아해서 왜 갔나고 물어보았더니, 중국인 유학생 채팅방에 죽을 짐작을 독려하는 글이 떴다는 것이다. 과연 중국인 유학생들을 한국 정치 집회로 몰아넣는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흙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

11:11)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까지 자기 나라에 유리한 선전선동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여태껏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었으며 자칭 민주화 세력이었고 또 친북, 친중 세력이 많았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적극 지지했던 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소리치는 혼신된 소수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은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이들이 ‘맞아 죽을 각오, 죽어 죽을 각오, 열어 죽을 각오’를 하고 조직적으로 혼신하여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위해 투쟁했을 때 마침내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고 수많은 나라들을 피로 물들이며 공산화했다.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공산주의에서 하나님은 없고 ‘종교는 아편’이다.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대학생 마약예방을 위한 DAPCOC 발대식 개최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대학생 마약예방을 위한 DAPCOC 및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발대식이 지난 8월 19일(월)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됐다. DAPCOC는 사단법인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 아하 담国籍을 뜻한다.

행사를 주관한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DAPCOC 및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발대식 개최를 진심을 축하한다”며 “오늘 마약 근절의 새로운 신호탄으로 쏘아 올려지는 대학생마약예방활동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멀게 만 느껴지던 마약은 지금 우리 가족과 친구, 이웃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한 때 마약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지만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학원가에서조차 마약이 유통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러분들은 마약정국으로 가는 마중물이다”라며 “여기서 마중물의 뜻은 마약중독을 물리치자”이다”라고 해석했다. 축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규 종신대학교 총장이 전했다.

방기선 실장은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증가는 우리 미래세대가 더 이상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마약문제는 마약을 투약하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현안과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전했다.



광복회의 광복절 행사 불참 논평

“광복회는 독립유공자들의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을 본받아 국론통일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2024년 제79회 광복절 기념행사가 전국에서 두 조각이 난 상태로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방 이후부터 작년까지 전 국민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하나님의 통일된 광복절 행사를 진행하여 왔었다. 그런데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장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새로 임명된 김형석 독립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국가 주최의 세종문화회관의 광복절 기념 행사의 참여를 거부하고 효장공원의 백범기념관에서 따로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 100여 명도 참석했다.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우며 해방을 맞이하는데 기여한 애국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본받으며 선진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광복회가 앞장 서서 분열된 행사를 개최한 것은 국민의 분열을 유도하고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살롬나비는 광복회가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광복절 행사를 개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한다.

1. 광복회는 솔선수범하여 국가와 협력하여 통합된 광복절 행사를 개최하여 국론통일에 앞장서야 한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후손들에 의해 1965년에 조직된 후에 1973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적 조직이 되었다. 이후 광복회는 3.1운동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광복절 기념행사에는 기념사 순서를 맡아왔다. 이와 같이 광복회는 3.1절과 광복절 행사에서 독립유공자들을 대표하여 그 정신을 기리는 역할을 담당

하여 왔다. 그런데 올해의 행사에서는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하고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진행하였다. 광복회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단체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행동이다. 만일 광복회가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다면 순국선열 유족회 등 한국독립운동과 관련 인정받는 공법단체들이 그 임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복회는 올해의 잘못을 반성하고 내년에는 통합된 광복절 행사 개최에 앞장서야 한다.

2. 광복회장은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들의 심사 과정에 참여하고서도 그 과정에서 선출된 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광복회장이 정부 주최의 광복절 행사 참여를 거부한 이유가 김형석 신임 관장 임명에 대한 반대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복회장은 신임 관장을 심사하여 추천하는 70인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했고 회장 본인이 2명을 관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본인이 추천한 2명이 준비 부족으로 후보로 추천되지 못했고 김형석 신임 원장이 후보자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아 임명되었다고 한다. 광복회장은 자신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했고 후보자들을 추천하는데, 자신이 참여하여 결정한 모든 과정이 잘못된 것인지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광복회장은 김형석 신임 관장이 ‘뉴라이트’라서 부적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심사과정에서 반대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임명되고 나서 그를 ‘뉴라이트’로 규정하고 친일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3. 광복회가 결정한 뉴라이트의 9가지 기준은 공정하지 못한 편향된 결정이다.

광복회는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관장을 반대하면서 뉴라이트 판단의 9가지의 기준을 만들어 제시했다. 광복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9대 뉴라이트의 정의(定義)’에서 뉴라이트를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일련의 지식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펼쳐놓은 광복회가 그런 세력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마녀사냥식의 비판을 멈추고 냉정한 자세로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겠다.

5. 광복회장이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건국절 추진을 비난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8월 15일 광복회가 따로 연 광복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을 펼쳐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기념사가 끝난 뒤엔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이 ‘1948년 건국절은 식민지배 합법화’라는 특별 강연을 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1998년에 건국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제2의 건국을 주장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친일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1948년을 기준으로 건국 50주년을 주장할 때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 때는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4. 광복회는 친일을 명분으로 자신의 미움에 들지 않는 세력을 비판하는 오만을 벼려야 한다.

광복회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을 친일이라는 명분으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한 때 반공을 강조하던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란 말은 반대세력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마녀사냥식의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지금

은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친일세력은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들로 인식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한 인식을 확산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이자 죽임기를 부르자던 조국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세력을 친일파이고 반민족세력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데 광복회가 그런 세력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마녀사냥식의 비판을 멈추고 냉정한 자세로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겠다.

6. 광복회는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광복회장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관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하나로 진행되던 광복절 기념 행사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독립운동의 후손들이라면 공정과 정의에 입각해서 광복회를 운영하여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으로 존경받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 반대운동을 일삼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다.

7. 광복회는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들의 공적을 통합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광복회는 평생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기여한 이승만은 배제하고 다른 독립인사들만을 추앙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이승만과 김구를 대립시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물론 양인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승만과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의 가장 중요한 독립유공자이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일생동안 외교독립론의

입장에 서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고 해방 후에는 유예 감시하에 국민투표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김구는 임시정부가 분열하여 조조의 위기에 빠졌을 때 공산주의 노선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주의 노선에 서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낸 독립유공자이다. 1945년 해방 후에 김구는 이승만과 협력하여 나라를 세우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승만과 김구를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통합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러한 면에서 김형석 신임독립관장이 2022년 ‘끌어나갈 역사전쟁’에선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국부(國父)로 우대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8. 광복회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으로 선언하였고, 1948년 7월에 제정된 헌법도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단합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제헌헌법 전문에 규정한 대로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데 노력하며 더 나아가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하겠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명의 실현에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가 광복회일 것이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선진화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귀감이 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단체로 발전해 가기를 촉구한다.

2024년 8월 26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제주지역 교회, 신장병 환자들 위해 기부

‘2024 후원의 밤’ 개최하며 1천만 원 도움의 손길 건네

(재)시랑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 태)는 제주 지역 교회 및 목회자들이 장기부전 환자들을 위한 생명나눔 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 월과 7월, 제주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와 서귀포중앙교회는 각각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신장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 인 제주 라파의 집에 기부했다.

지난 7월 28일 제주시 서귀포중앙교회(김상현 담임목사)는 후원금 1천만 원을 ‘제주 라파의 집’에 전달하며, 혈액투석 환자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였다. ‘생명 살림의 교회’라는 비전을 품은 서귀포중앙교회의 김상현 담임목사는 “라파의 집이야말로 제주 교회와 지역사회 의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며, “이번 후원금이 라파의 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중앙교회의 후원금 전달이 있어 약 한달 전인 6월 20일에는 제주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위원장 김재우 목사)가 호텔샬롯제주에서 ‘2024 후원의 밤’을 개최하며, 후원금 1천 만 원을 라파의 집에 기탁했다. 이날 위원

장 김재우 목사는 “혈액투석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예 수님의 사랑과 제주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라파의 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단협의회장 강두성 목사도 “질병의 고통과 생계 능력의 박탈로 힘겨워하는 투석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제주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출범해 현재 34명의 목회자가 활동하며 제주 지역의 장기기증 활성화와 제주 라파의 집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제주 라파의 집은 신장을 이식받기 전까지 평생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을 위해 2007년 본부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립한 시설로, 현재까지 1만여 명의 환자가 다녀가며 투병 중에 심신의 안정을 얻었다. 그동안 교회, 기업, 개인 후원자들의 기부로 운영에 도움을 받아 온 제주 라파의 집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재정난이 가중되어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업과 취업 과정 적응과 정착 돋기로

(사)한국다문화희망협회, (주)에듀원 유학생 적응지원 위해 협약

(사)한국다문화희망협회(대표 장윤재 목사)와 (주)에듀원 그룹(대표 윤지영·김한상)이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습득과 적응을 돋기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23일(금) 강남 브리蹲어학원(강남구 역삼동)에서 손을 맞잡은 양측은, 해외 우수 인재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하면 그들이 졸업 후 취업시까지 국내 정착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안정적인 학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에듀원 그룹은 해외 유학생을 어학, 학사, 석사과

정으로 모집하고, 모집된 이들의 입학 관련 제반 서류 준비 및 입국 수속을 도운 뒤, 유학생의 한국어 습득 및 한국 문화 적응을 체계적으로 돋게 된다. 즉 입학 전형 단계부터 졸업까지의 유학생 개인별 연락망 구축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이후 (사)한국다문화희망협회가 유학생들의 재학 중 이탈 방지를 위해 도우며, 그들의 한국 적응을 위한 한국어 훈련과 한국 문화 습득 및 정착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주)에듀원 그룹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이른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면서

아침 동산 떠오르는 태양의 시선을 따라
오늘도 햇살 가득 행복의 옷을 입는다.
아 서광의 친란함이여
희망을 노래하자

기증된 허상이여 아둠의 가면을 벗으라.
아 헛된 우상이여 지난밤을 녹여
차가운 미소로 분출하라.
하루의 체온은 인생사 치열함으로 달궈지고
폭염의 열기는 입 벌려
대지를 삼킨다.
아 거룩한 숨결이여 비상하라.
비움의 호흡이여라

앞산 초록 시공의 배경이여
한 그루 한 그루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성냄도 노여움도 미움도 욕심도 없는
비밀의 숲 나 여기에 있어
오늘을 바웠다.
그리고 영원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영혼을 위하여
영원히 ...
영원히 ...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는
미스바 십자가 대성희 강사로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온무리들을
집중케 했다.

역시 가족세트전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딜가든지 꼭 필요한
가족세트전도 영접기도이다.
'한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심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
평가 되는가를 다시 한 번
기습에 새기며 오늘도
가족세트는 전진한다.

가족세트전도 총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저출생위기 극복과 지방정부의 역할

장현일 목사 종교시설 영유아 돌봄 시행령 개정 필요성 강조



장현일 목사

장 김재우 목사는 “혈액투석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예 수님의 사랑과 제주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라파의 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단협의회장 강두성 목사도 “질병의 고통과 생계 능력의 박탈로 힘겨워하는 투석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기희, 송실태 교수)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외교부를 비롯해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특별시, 경주시, 창원시 등이 주최해 지방자치를 위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학술대회 첫날 경주시 기획 세션에서 저출생위기 극복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배기희 회장의 사회로 정재훈 대표이사(경북행복재단, 서울여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안성렬 본부장(경북저출생과의전쟁본부)이 “저출생위기와 경상북도의 극복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유목민 사회’가 아닌 태어난 곳에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정주민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



하고 주장했다.

이상업 교수(건국대, 전 대외부총장)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구조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발표를 통해 “Our Women-Up 프로젝트”를 시·도지사와 지역대학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현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

복을 위한 사회구조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건축법’과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교회 등 종교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돌봄 시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와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로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하여 결혼과 출산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신대, ‘제4회 아신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연다

아신대학교 교육연구소는 ‘제4회 아신(CTS)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4회째로 기독교 청소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금액이 총 400만 원이다.

공모전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 분야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회교육과 기독교학교에서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다양한 교육 미디어 콘텐츠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공모전들에서는 교사, 시민, 그리고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로 기독교교육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지난 제3회 공모전부터는 공모 대상이 기독교 청소년으로 바뀌었다. 기독교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자유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해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은 8월 2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다. 아신

대학교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수인 교수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미디어의 영향이 커져가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아신대학교 교육연구소(031-770-7787, edu@acts.ac.kr).

타 교단 가입자 연수교육 공지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타 교단에서 본 교단에 가입한 교역자
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10월 7일(월) 1회, 14일(월) 2회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3. 대 상 : 타 교단에서 본 교단에 가입한 교역자로서 연수교육
미필자
4. 등록현금 : 50만원(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등록마감 : 2024년 9월 24일(화) 17:0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영준

총무 목사 오세준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본부
전화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E-mail: aogk@aogk.org

